

高麗 醫書 『御醫撮要』의 복원

안 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heuichaulyo』-Restoration of the lost medical book in ancient Korea

Ahn Sang-Woo

『Aheuichaulyo』御醫撮要』 was known to be published by Choi Jong-jun崔宗峻 in Korea高麗 Dynasty(A.D.1226), however its original copy is not available at the present. It was thought that Korean folk medicine and the remedies were recorded in this book, and these were recorded in 『Euibangyoochui』醫方類聚』 published in Chosun朝鮮 dynasty(1445). 『Euibangyoochui』 is called a treasure-house of the knowledge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which contains over 50,000 prescriptions and enormous amount of medical information. The restoration of 『Aheuichaulyo』 was possible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data base work of 『Euibangyoochui』.

『Aheuichaulyo』 was restored as 132 chapters mainly from the related contents of 『Euibangyoochui』 and partially from the contents of 『Hyangyakjip sungbang』鄉藥集成方』 and 『Boonmoononyukyihabang』分門瘟疫易解方』 for the supplement.

* 본고는 기 발표논문으로 출판작업 중 수정 보완한 것임.

고려 이전의 의학서는 대부분 散逸되어 서명이나 일부 내용만 전할 뿐 完整的 형태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醫方類聚』, 『鄉藥集成方』을 비롯한 조선 전기 의서에 인용된 일부 내용만이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국본 한의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鄉藥救急方』이 판본 대조를 통하여 복원¹⁾된 바 있으나 다른 의서나 기록만 남은 몇 종의 의서들²⁾은 고려 이전 시기 한의학 연구에 좋은 자

1.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1994.

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유처방에 대한 수집 정리나 복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해지지 않는 고려 이전의 한의서 중 『御醫撮要』³⁾는 다른 의학서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분량의 내용이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등에 남아 있다. 특히 『의방유취』에는 중국에서도 이미 없어진 서적이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서의 수집, 복원에 있어서 주요 底本이나 참고서로 이용되고 있다. 근세 일본에서는 丹波元簡을 주축으로 한 고증의학과들이 『의방유취』의 목활자 중간과 함께 30여부의 失傳醫書を 채록하여 『醫方類聚採輯本』을 펴낸 바 있으나 고려 의서인 『어의촬요』는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어의촬요』는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 「新集御醫撮要方序」가 수록되어 전하기 때문에 이 책의 출판사실과 편찬경위 등 간략하나마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알 수 있어 복원을 위한 기본요건이 충실한 편이다. 그리고 한두 개 약물로 구성된 단방을 위주로 편성된 『향약구급방』과는 달리 여러 약물로 구성된 複方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 고유의학 전통과 중국의학의 접점을 이루는 의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려 중기 이후의 의학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규보의 「신집어의촬요방서」를 중심으로 『어의촬요』의 편찬배경과 전승내력 및 편찬자와 관련 인물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복원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어의촬요방』 복원 방법과 편집구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 및 각 처방의 인용부와 대조방서를 대비해 봄으로써 차후 실전 의서의 복원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편찬배경 및 전승내력

본서의 편저자 및 서지사항에 관한 사료로는 현재 『東國李相國集』 권21, 「說·序」에 실린 「新集御醫撮要方序」가 거의 유일한 근거자료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 서문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기타 관련자료를 참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東人經驗方』, 『三和子鄉藥方』, 『濟衆立效方』, 『鄉藥古方』, 『鄉藥易簡方』, 『鄉藥惠民經驗方』 등.

3). 기록상 이 책의 서명으로 『신집어의촬요방』, 『어의촬요방』 등이 사용되었으며, 약칭으로 『촬요』, 『어요』 등이 가능하나 본고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전된 원서를 지칭하는 경우 『어의촬요』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또 이와 구별해서 『의방유취』 내 인용편명을 지칭하는 경우에 어의촬요편, 채록된 처방의 경우 어의촬요방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원문】 「新集御醫撮要方序」

夫有生之所重者，身與命而已矣。雖死生壽夭皆開乎天，若因節宣失適，爲疾恙所寇，而無良方妙藥以理之，則其間豈無橫失其命者耶？

是古聖賢所以著『本草』·『千金』·『斗門』·『聖惠』諸方，以營救萬生之命者也。然部秩繁浩，難於省閱，其若寢疾彌留，勢可淹遛時日，則謁醫可也；搜諸盡求其方，亦可也。至如暴得重病，蒼皇危急，則又何暇謁醫搜書之是爲也，不若採菁撮要，以爲備急之具也。

國朝有茶房所集『藥方』一部，文略効神，可濟萬命，以歲久脫漏，幾於廢失矣。

今樞密相公崔諱宗峻，見而惜之，思欲摹印以廣其傳，以此聞于上，上遂欣然頷可。

公於是分爲二卷，又添附諸方之最要者，使人繕寫，名之曰『御醫撮要』。承制勅送西京留守官彫印，使流播於人間，是亦聖朝視民如赤子之仁政也，抑又士君子所以汎濟含生之意也。

噫！有善不可蓋者，予守也，公又命之爲序，則其可避乎？敢再拜略書梗槩耳。

時丙戌四月日，序⁴⁾

【국역】 새로 엮은 『어의촬요방』에 대한 서

인생이 소중한 여기는 것은 건강과 생명이다. 살고 죽는 것과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다 하늘에 매인 것이라 하나, 만일 건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질병이 침범하게 된다. 그때 훌륭한 처방과 뛰어난 약으로써 이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운명에 관계없이 사람은 목숨을 헛되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므로 옛 성현은 만백성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本草經』, 『千金方』, 『斗門方』⁵⁾, 『聖惠方』 등 많은 의학 서적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권질이 너무 번다하여 열람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만일 시일이 오래 걸릴 병이라면 직접 의원을 찾는 것이 옳으나 서적을 뒤져서 그 방문을 찾는 것도 괜찮다. 시간을 다루는 위급한 중병을 얻었다면 어느 겨를에 의원을 찾고 서적을 뒤질 시간이 있겠는가? 아예 정밀하고 요긴한 것만을 채집하여 위급을 대비하는 것만 못하다.

우리나라 茶房에서 수집한 『藥方』문 한 질이 있는데 문장은 간략하나 효과는

4). 원문은 民族文化推進會 編,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91:512-513과 민족문화추진회 편, 『동국이상국집』III.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9:60-61을 참고하여 標點을 찍었다.

5). 실전된 책 중의 하나로 혹자는 ‘素問’이라고 주석하였지만, 『證類本草』의 經史方書에 올라 있고 『향약집성방』에 20여 조가 인용되어 있다.

매우 좋아 많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음에도 수집한 지 오래되어, 책장이 빠져서 거의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었다. 때문에 지금 樞密 相公으로 있는 崔宗峻이 이것을 애석히 여긴 나머지 다시 인쇄하여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이를 임금께 아뢰니 흔쾌히 허락하였다.

공은 이 책을 두 권으로 나누고 또 모든 약방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만을 뽑아서 첨부한 후 일일이 붓으로 옮겨 써서 이름을 『어의촬요』라 붙였다. 그리고 어명으로 西京留守官에게 보내 인쇄시켜 세상에 널리 퍼게 하였다. 이 일은 나라에서 백성을 항상 보살펴주는 어진 정책이며, 또한 학문이 깊고 덕행이 높은 사람들이 증생을 널리 구제하는 뜻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 남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모른체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기질인데, 하물며 공이 서를 쓰라 명하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삼가 두번 절하고 그 대략을 쓴다.

병술년(고종13년 1226) 4월 일에 서한다.⁶⁾

이상 「신집어의촬요방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당시에 있던 의방서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 위급 시에 급히 참조할 수가 없었고 고려 茶房에서 간략하면서 효과가 좋은 방제만을 수집한 『醫方(藥方)』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 지나 유실될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최종준이 흠어진 처방을 다시 모아 2권으로 나누어 묶고 여러 의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첨부하여 완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방에서 모은 약방은 특정 인물의 저술이라기보다는 적어도 누대에 걸쳐 태의들이 사용해온 경험방들을 모은 것으로 여겨지며, 고려 중기 이후 정치적 혼란과 빈번한 의관직제의 개편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돌보는 이 없이 산질되어 가고 있던 상태였을 것이다.⁷⁾

‘國朝有茶房所集『藥方』一部，文略効神，可濟萬命，以歲久脫漏，幾於廢失矣.’

이규보가 이 서문을 지은 시기는 고종 13년(1226, 丙戌) 4월로 되어 있는데, 최종준을 ‘樞密相公’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고려사』에 나타나는 기록상으로는 최종준은 동년 12월에 同知樞密院事가 되었으며, 또 이듬해인 1227년(丁亥) 12월 1년만에 한

6). 해석은 민족문화추진회 편. 『동국이상국집』III. 앞의 책, 213-215을 토대로 『李奎報詩文選』(나랏말씀13). 「序·新集御醫撮要方序」, 서울:술, 1997:198-199.을 참고하여 다듬었다.

7). 고려의 茶房은 궁중에서 소용되는 차와 御藥의 煎煮를 담당하던 기관으로 文官과 醫官이 함께 近侍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武臣執權 이후 무관의 검직이 빈번해지고 점차 유명무실해졌다.(孫弘烈.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pp. 100-103.)

단계 윗 직급인 知樞密院事 左散騎常侍에 임명된다.

따라서 그는 신종 4년에 魁科⁸⁾에 급제한 이후, 추밀원에서 여러 직위를 역임하고 左承宣을 거쳐 상례대로라면 1226년 4월 이전 樞密院副事⁹⁾ 정도의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추밀상공인 최종준이 출판을 주청하여 왕의 재가를 얻은 후, 『어의촬요』를 편집하고 이를 평양부에서 인출토록 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당시 국자감에서 재직중이던 이규보에게 서문을 짓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¹¹⁾

당시 추밀원은 991년에 설치된 중추원이 현종 때 바뀐 것으로 일반적으로 군사기무와 왕명출납, 宿衛를 담당하던 중앙관부이다. 3품 이상의 樞密은 군국기무를 담당하고 하위직인 承宣은 왕명출납을 분장하고 있었지만, 병권이 없었기 때문에 추밀은 사실 고정된 직무가 없이 명예직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추밀은 직급상 宰相과 동등한 위치에서 宰樞로 불릴 만큼 상호 견제되는 위치여서 왕의 재가를 얻어 사업을 기획하기에는 충분한 위치였다. 또 최종준의 집안은 최씨 무신정권과 누대에 걸친 혼인관계를 맺고 여러 명의 재상을 배출할 정도로 최고의 문벌이었다.

『어의촬요』는 고려 왕실에서 누대에 걸쳐 경험한 처방을 수집한 것이므로 삼국 이래의 자국적인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거란과 몽고의 압박을 겪고 있던 무신정권 시기의 자주적 기풍이 가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은 이후에 『향약집성방』에 다수 인용되었고 『의방유취』에 유일무이하게 확실한 자국의서로 인용제서에 포함¹²⁾되어 중국 의서와 동등하게 발췌된 사실을 감안할 때 상당 부분 신빙성 있는 입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약간의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두중은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12조의 인용방과 달리 『의방유취』에 수록된 어의촬요방이 동일한 책이라고 확인하는데 주저하고 있다.¹³⁾ 실제 인용문을 대비해 보면 중복 처방의 경우 약간의 문자출입이 있으나 처방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서명은 이규보의 서문에서도 ‘名之曰 御醫撮要’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新撰’이라는 수식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래도 자국의학을 표방하는 『향약집성방』과 중국 의서의 집대성에 주력한 『의방

8). 과거에 첫째로 하격함. 卅元及第, 魁榜(등).

9). 『고려사』에는 고종 13년 이전 3-4년간 최종준의 직급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10). 고종 34년에 거란족의 침입에 知兵馬使로 출병한 사실로 보아 이미 그가 추밀원에서 상위직급으로서 군국기무를 주관하는 추밀에 올랐음을 말해 준다.

11). 같은 시기 59세의 이규보는 國子監 齋주즉진이 되는데, 崔誥과 崔宗峻 부자의 집안과는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2). 『의방유취』내 한국 고유 의서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으나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기로 하고 좀 더 진전된 연구결과를 기다리기로 한다.

13). 김두중, 『한국의학사』

유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두 의서의 『어의촬요』 인용비율이 예상과는 달리 역전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의방유취』에서 어의촬요편 인용방중 상당수가 이름만 실려 있고 처방이 수록되지 않은 점, 이름만 남은 처방 중 ‘벽은신명단’이 시기적으로 뒤늦게 출간된 『분문온역이해방』에 남아 있는 점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으나 『어의촬요』의 전승내력에 관한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어의촬요』가 최종준의 주청에 의해 왕명으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 정사류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 典醫提調 黃子厚의 陳言중에 『百一選方』, 『易簡方』, 『經驗良方』 등의 서적과 함께 『撮要』라는 서명이 보이는데, 이것은 『鄉藥集成方』이 완성되기 불과 10일전의 기록이다.¹⁴⁾ 『향약집성방』 내의 인용서중에는 ‘촬요’로 약칭할 만한 서적이 없고 더구나 『의림촬요』나 『고사촬요』, 『구황촬요』 등의 상관서는 모두 다 후대의 일이므로 『어의촬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찌 됐던 서지목록 중에서 조선 중기의 『攷事撮要』 「八道冊板目錄」에 진주에 관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¹⁵⁾되어 있고, 인조15년(1637) 金佺가 저술한 해제집 『海東文獻總錄』 「醫藥類」 첫 항에도 수록되어 있다.

御醫撮要

○高麗時有茶房所集醫方一部樞密使崔宗峻又添付諸方之最要者名之曰御醫撮要李奎報有序

○崔宗峻鐵原人詵之子神宗朝擢魁科高宗朝拜侍中乞退王不允曰崔時中終始一節豈循常例遽令致仕居處飲食豪侈附崔禍多有紊法之事¹⁶⁾

위 기록의 첫 번째는 이규보의 서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고려사』의 기록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세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의 『朝鮮書誌』에도 『御醫方』, 『御醫撮要』 등의 서명과 함께 『攷事撮要』가 인용되어 있다.

한편 순조대에 편찬된 김조순의 『增補文獻備考』·藝文考6·醫家類에는 ‘어의최요방 御醫最要方’이라는 명칭으로 맨 처음 수록되어 있다.¹⁷⁾

14). 세종15년(1433) 6월1일조 기사.

15). ‘御醫方’으로 되어 있고, 선조 재위 초기에 수록된 팔도책판목록의 인본들이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으므로 어의촬요 또한 이 무렵에 인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16). 金佺. 『海東文獻總錄』 影印. 서울: 學文閣, 1969.

御醫最要方二卷 宣肅公崔宗峻奉宣撰

이 기록은 같은 곳에 수록된 여타 서적 중 당시 이미 일실된 것이 확실한 서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물을 두고 기록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御醫最要方 다음에 수록된 鄉藥濟生集成方 30권은 향약집성방의 모본으로 1433년 향약집성방 출간 이후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이어 수록된 瘡疹集 역시 세조대 任元濬에 의해 만들어진 후 널리 쓰여왔으나 조선 중기 이후 전해지지 않았었다. 1997년 중국 절강성에서 발견되어 국내에 소개되었고, 본 연구원에서 의방유취와의 비교연구가 시행되었으며 곧 복원본을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조선후기까지 전본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어도 중기까지는 조선 내에 판본이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동국이상국집을 제외하고는 임진왜란 이전의 문헌으로서 유일하게 어의찰요를 기록한 『大東韻府群玉』의 언급이다. 權門海(1534~1591)가 조선전기의 여러 기록과 문헌을 인용하여 운자에 따라 東國의 史實을 저술한 이 책에는 잃어버린 문헌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대량 수록되어 있다. 서명의 끝자 要韻 항의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御醫撮要

○高麗時有茶房所集醫方一部樞密使崔宗峻又添付諸方之最要者名之曰-- 李奎報
有序【本集】

이 문구로 보아 김휴의 기록 중 첫 항은 권문해의 기록과 같고 둘째 항은 고려사의 기사를 옮겨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또 藥方과 醫方이라는 어의찰요 모본에 대한 다소 다른 이름이 대비된다. 두 기록이 모두 이규보의 서문에 의거한 듯 해 보이는데 동국이상국집에서 약방이라 한 것이 의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분명 서로 다른 책은 아닐텐데, 통용본의 정식 명칭이 아니어서인지 ‘藥’이 ‘醫’로 바뀌어 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

17). 여기서 어의찰요의 또 다른 표기로 ‘御醫撮要方’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국한대역식으로 편제된 『본문은역이해방』에서는 ‘御 :어 醫 의 撮 :최 要 요 方 방’으로 표기하고 있다.

18). 후대의 『의림찰요』를 비롯한 조선 중기 이후의 의서에서는 『어의찰요』를 직접 인용한 곳이 보이지 않으며, 崔秀漢의 『朝鮮醫籍通考』(1996: 79.)에 의하면 『동의보감』에 ‘御要’라는 출전이 미분류의서로 기록되어 있으나 논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라도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여말 잦은 의료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혼동이다. 고려 문종 이전에 설치된 茶房은 御藥을 관장했으며, 고려인은 상시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茶藥’을 병칭할 정도로 중시했음이 북송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중국인 徐兢의 『高麗圖經』에 적혀 있다.¹⁹⁾ 또 대표적인 궁중의료기관의 하나인 尙藥局도 奉醫署, 尙醫局 등으로 여러 차례 개칭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후대에 다소 혼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비슷한 이유에서 약방 또는 의방을 별도의 서명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는데 일견 수긍할만한 점이다. 그러나 여하튼 권문해와 김휴 등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茶房-(御)醫方’에 최종준이 여러 방서의 긴요한 처방을 덧붙여 어의촬요를 만들었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또 고사촬요의 책판목록에 『御醫方』으로 적힌 것으로 보아서 어의 처방집이라는 의미에서 의방으로 통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얘기한 바를 요약하면, 대략 고려 문종 이전부터 다방에서 쓰여졌던 전통 처방들이 약(국)방이나 의방이라는 명칭으로 전해오다가 멸실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고려 고종13년(1226) 최종준이 발의하여 전래의 처방집에 요긴한 처방을 새로 보충하고 2권으로 개편하여 평양에서 발행한 것이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편찬 시 인용서로 쓰여진 이후 조선 중기까지 ‘어의방’ 혹은 ‘어의촬요’라는 서명으로 전해지던 이 책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편찬자 및 관련 인물

2.1 최종준

崔宗峻²⁰⁾은 위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御醫撮要』의 실질적인 편찬자로서 茶房에서 전해져오는 醫方을 토대로 흩어진 처방을 수집하고 보완하여 분류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준은 고려말 昌原 崔氏 崔詵(?-1209)의 둘째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조부인 崔惟淸(1095-1174)은 經·史·子·集에 밝았고 불경에도 조예가 깊었다²¹⁾. 그의 아버지

19). 北宋 宣和5년(고려 仁宗元年, 1123) 徽宗의 명으로 고려를 방문한 徐兢은 귀국하여 『宣和奉事高麗圖經』을 지어 왕에게 바치는데, 원서의 그림은 이미 실전되고 후손이 전한 원고문장만 여러 차례 중간을 거듭하여 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중 권32 茶菴조에 “麗人謂(茶)湯爲藥”이라는 말이 나온다.

20). 崔宗峻의 이름자는 ‘俊’, ‘浚’ 등이 혼용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본고에서는 일단 ‘峻’으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1권).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최선은 문학으로써 세상에 알려졌고 恬淡하고 말이 적어 문벌로써 자부하지 않고 어진 이에게 예하고 선비에게 몸을 낮추었다고 한다²²⁾. 최종준에 대한 『고려사』의 기사를 검색하고 기타 인물지 등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그의 생애와 활동상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고려사』 최종준 관련 기사

[神宗 4년 5월] 簽書樞密院使 閔公 珪가 知貢擧가 되고 國子大司成 金平이 同知貢擧가 되어 進士를 취하고 최종준 등 33인에게 급제를 賜하였다²³⁾

[神宗 4년 5월 庚午] 최종준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²⁴⁾.

[高宗 3년, 金就礪條] ……契丹 遺種인 金山王子와 金始王子가……군사수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寧·朔 등 鎭을 치고 城外의 財穀과 蓄産을 鹵掠하여 갔고 또 다음날에 義·靜·朔·昌·雲·燕 등 州와 宣德·定戎·寧·朔의 諸鎭에 闌入하니 모두 처자가 따르지라 산야에 미만하여 임의로 禾穀과 牛馬를 취하여 먹으니 月餘동안 있으면 먹을 것이 다하였으므로 雲中道로 옮겨 들어가거늘 이에 尙장군 盧元純으로 中軍兵馬使를 삼고 知御史臺事 白守貞으로 知兵馬事를 삼고 左諫議大夫 金蘊珠로 副使를 삼고 尙장군 吳應夫로 右軍兵馬使를 삼고 최종준으로 知兵馬事를 삼고 侍郎 庾世兼으로 副使를 삼고 就礪는 後軍兵馬使가 되고 ……²⁵⁾

[高宗 4년?, 金就礪條] <契丹과의 전쟁중> ……최종준으로 知兵馬事를 삼고 ……²⁶⁾

[高宗 丙戌 13년 冬 12월 癸卯] 貢天源으로 樞密院使를 삼고 柳彦琛으로 同知樞密院使 左散騎常侍를 삼고 崔宗俊, 崔正份으로 모두 同知樞密院使를 삼고 丁公壽로 樞密院副使 尙書右僕射를 삼았다²⁷⁾.

[高宗 丁亥 14년 冬 12월 辛未] …… 柳彦琛으로 樞密院使 禮部尙書를 삼고 최종준으로 知樞密院使 左散騎常侍를 삼고 崔正份으로 樞密院使를 삼고 崔正華로 同知樞密院使 戶部尙書를 삼고 李元城, 奇濔, 金之成으로 모두 추밀원부사를 삼고 陳湜으로 右僕射 翰林學士를 삼고 史光補로 병부상서를

466.

22).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譯註高麗史』 「列傳」 권12 (8분책). 서울: 太學社, 1987: 482.
 23).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志」 권27(7책), 33.
 24).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世家」 권21 (2분책), 512.
 25).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652.
 26).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657.
 27).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世家」 권22 (2분책), 567.

삼고 金叔龍으로 樞密院左承宣 工部尙書 知吏部事를 삼고 鄭暉으로 호부상서를 삼고 李仲敏으로 형부상서를 삼고 崔宗藩으로 樞密院左副承宣을 삼고 李頌으로 右承宣을 삼고 李奎報로 判衛尉事 知制誥를 삼고 庾敬玄으로 尙書右丞 知御史臺事를 삼고 白敦貢으로 試秘書監 左諫議大夫를 삼았다²⁸⁾.

[高宗 戊子 15년 冬 12월 戊辰] …… 貢天源 崔正份으로 모두 參知政事를 삼고 최종준으로 知門下省事 吏部尙書를 삼고 金仲龜로 知樞密院事를 삼고 奇濤으로 同知樞密院事를 삼고 陳湜으로 樞密院副使 御史大夫를 삼고 史光補 兪升근으로 모두 樞密院副使 左右散騎常侍를 삼고 洪斯胤으로 尙書右僕射를 삼고 崔正華로 樞密院使를 삼아 인하여 치사케 하고 朴世通으로 병부상서를 삼고 趙廉卿으로 예부상서를 삼고 金叔龍으로 樞密院知奏事를 삼고 金良鏡으로 형부상서 한림학사를 삼고 金承俊으로 試戶部尙書를 삼고 崔宗藩으로 左承宣을 삼고 李頌으로 左副承宣을 삼고 崔林壽로 試秘書監 左諫議大夫를 삼았다²⁹⁾.

[高宗 21년] …… 최종준을 위하여 집을 지음에 이틀만에 준공하였는데 길에 가는 사람의 말을 빼앗아 재화를 실어나르니 때에 태를 칭탁하고 사물을 실어 나르는 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여 행인이 원망하였다³⁰⁾.

[高宗朝, 金方慶條] 고종조에 나이 16으로 散員 兼式目錄事로 蔭保되었는데 시중 최종준이 그 총직함을 사랑하여 예로서 대우하고 큰 일이 있으면 다 맡기었다³¹⁾.

[高宗 乙巳 32年 秋 8月 丁酉] 문하시중 최종준이 죽하였다³²⁾.

자료 2: 『고려사』 최종준 관련 기사

최종준은 神宗 4년에 魁科에 뽑혔고 高宗朝에 累官하여 左承宣에 이르렀다. 舊制에 國子監이 四季月 6衙日에 衣冠의 子弟를 모아 『논어』, 『효경』으로써 시험하여 합격한 자를 吏部에 보고하면 이부에서 다시 世系를 상고하여 初職을 주는지라 중준이 그 아들로 하여금 시험보게 하니 國子正錄이 試日이 아님으로써 듣지 않거늘 중준이 崔瑀를 통하여 이를 청하니 이에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때에 사람들이 이를 비방하였다. 左散騎常侍 知門下

28).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569-570.

29).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572-573.

30).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권42(10분책), 536.

31).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권17 (9분책), 1.

32).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世家', 권23 (2분책), 621.

省事를 지내고 累拜하여 門下侍中에 이르렀는데 29년에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崔侍中은 시종 절조를 한결같이 하고 청렴하게 나라를 받들었다. 근래 국가에 사고가 많아 의론이 분분하였는데 事機에 다달아 잘 처결하였고 도성을 옮겨 사직을 호위하였으니 공이 비할 바가 없도다 어찌 常例를 따라 갑자기 일을 사퇴하게 하리요’하고 드디어 凡杖을 賜하였다. 33년에 추하였다. 사람됨이 엄중하여 말이 적었으나 聲色을 즐겨 거처와 음식이 지나치게 사치하였다³³⁾.

최종준이 활약한 시기는 곧 최씨일가의 무신정권 시기이다. 최종준은 최충헌이 집권하기 전부터 그와 친분이 있었다. 또한 최충헌의 아들인 崔瑀가 그의 조카사위였고 아들인 崔曄은 崔沆에게 출가시켜 장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³⁴⁾.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3대 5정승을 배출한 문벌 세도가 집안의 顯職에 있었던 최종준이 의서의 편찬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상 의약 관련 직무에 관여되지 않은 그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 의학서의 출판을 주도했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2.2 이규보

李奎報는 최종준의 요청에 의해 『신집어의촬요방』의 서문을 지은 작자로서 이규보가 그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에 편입됨으로써 발행 사실이 전하게 된 것이다.

이규보(1168-1241)의 어려서 이름(初名)은 仁氏, 자는 春卿, 호는 白雲居士, 만년에는 시·거문고·술을 좋아하여 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한다. 戶部侍郎을 지낸 允綏의 아들이다. 그는 이미 9세에 글을 잘 하였으므로 당시 그를 신동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그는 14세 되던 해(1181) 崔沖이 설치한 文憲公徒 誠明齋의 문을 두드려 학업을 닦고, 16세에 司馬試에 응했지만 이후 세 차례나 낙방하는 고배를 마시다가 明宗 19년(1189) 22세 되던 해에 급기야 장원을 하였고 이듬해에 진사에 뽑혔으나 그 등차가 하위를 차지하여 이를 물리려 하자 嚴君으로부터 준엄한 꾸지람을 받기도 하였다. 神宗 5년(1202)에 경주에서 반란이 있자 종군하여 兵馬錄事가 되었다. 熙宗 3년(1207)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에 翰林에 들었으며 康宗 원년(1212)에 千牛衛錄事 參軍事에 제수되고 같은 해 6월에 다시 검직으로 한림원에 복직하였으며 1215년에는 崔忠獻이 右正言知制誥를 내려주어 左右司諫을 역임하게 되었다. 최충헌이 죽은

33).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譯註編輯. 앞의 책, 482-483.

34). 『한국사』 18. 「고려 무신정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3: 57, 237.

뒤 53세에 禮部郎中이 되고 寶文閣待制, 太僕少卿(55세), 國子監祭酒, 翰林侍講學士, 判衛尉事를 역임하였으나 高宗 17년(1230) 63세때 狴島로 유배되었다가 高宗19년(1232) 65세의 나이에 寶文閣學士로 재기용되었다.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書·表 등을 지었는데, 이규보의 문필에 몽고왕이 크게 감탄하여 병사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勢寡不得으로 朝廷은 江華로 도읍을 옮겼다. 고종은 다음 해 6월 그에게 樞密院副使 右散騎常侍寶文閣學士(66세), 12월에는 知門下省事戶部尙書集賢殿太學士判禮部事를 제수하였다. 68세 이후에 벼슬에서 물러나 평생 즐겼던 詩酒로 낙을 삼고서 가난한 생애를 보냈으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나 대외적인 書, 表 등은 그가 계속하여 짓기도 하였다. 1241년 9월 2일 향년 74세로 운명하였다.³⁵⁾

그에 대한 고금의 인물평은 극단적이지는 않으나 대략 2가지로 상반된다. 고려사에 전하는 기사는 그의 정치적인 성향과 입신출세주의, 항몽과정에서 나타난 행실, 최씨정권과의 밀착성 등으로 폄하되어 있다.

“그는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文翰의 관직자이며, 양심적이나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학식은 풍부하나 본질상 입신출세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였다. 그는 최씨정권하 일반 문한직 관리층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이에 반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학적인 업적과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눈에 비친 무인정권은 초기의 무자비한 정중부와 같은 집단도 아니었으며, 건국 초기의 발랄하던 의지를 상실하고 글만 숭상하는 나약한 구귀족들도 아니었다. 오직 고려의 민족적 긍지를 지키기 위해 이민족과 대결하는 국가의 간성이자 보루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무인집권의 현실적 제약 아래서 이 시대의 역사 현실과 저항 정신이 내면적으로 심화되고 극복되어 문학의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³⁷⁾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의 의학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의촬요』를 비롯한 의서뿐만 아니라 질병명 및 의학용어, 질병관, 약제나 식이, 처방, 약초재배, 의가, 醫事 관련 내용, 그리고 양생이나 신선도교, 미신타파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의학관련 기록이 검색되어 그가 평소 의학에 상당한 소양을 지니고 있었음이 밝혀졌다.³⁸⁾

그가 서문을 지은 시점은 국가감에서 근무하는 한림학사로써 이미 문명文名이 최

35). 『동국이상국집』 연보 참조.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17권), 720-721.

37). 『이규보시문선』 해설. 서울 : 숲, 1997.

38). 『歷代韓醫學文獻의考證 I』. 서울 :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pp.264-274.

고조에 달할 즈음이고 30년 가까이 지속된 최선, 최종준 부자의 집안과 친분이 두터워 자연스럽게 어의촬요의 편찬에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儒醫로서 문장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했던 그가 왕부의 전승 경험을 수집한 『어의촬요』의 편찬에 관여하고 서문을 지은 것은 한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3. 어의촬요방의 복원

3.1. 복원방법

『향약집성방』에서는 각 병증문 처방의 冒頭에 기재된 출전서명을 하나하나 열람하면서 12개의 처방을 발췌하였다.

『의방유취』에서는 먼저 편집체계에 따라 각 병증문의 「어의촬요」편을 발췌하였다. 다음으로 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산복원본 『의방유취』원문을 이용하여 전산검색하였다. 전산검색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御醫撮要’, ‘御醫撮要方’, ‘御醫’, ‘撮要’, ‘御要’ 등의 가능한 한 검색어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누락의 경우를 대비하였다.

이는 『의방유취』의 「범례」중

“한 문안에 한 가지 약방이 거듭 나오는데 그 적응증·약재·먹는 방법에 다른 점이 없으면 처음 보이는 곳에 아무 처방과 같다고 적고, (내용이) 대개는 같고 조금 다르면 그 다른 부분만을 따서 첨부했으며 조금만 같고 대부분이 다르면 처방 전체를 붙여 적었다”³⁹⁾,

“모든 방서의 이론은 중복된 것을 빼버리고 적지 않되 ‘어느 책과 같다(某方同)’고 적고 혹 글의 내용은 동일하되 앞뒤가 조금 다르면 대략 머리말을 들어 쓴 다음에 같은 부분은 “云云”이라고 적고 이어서 뒷말을 썼다”⁴⁰⁾,

“한 가지 약방의 증상과 치료가 여러가지 병에 겸한 경우에는 각 문에 나누어 적지 않고 다만 본래의 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에 의거하여 적었다”⁴¹⁾,

”대개 같은 처방이 다시 나오는 것은 처음 나오는 방서에 붙여 놓았다.

39). “一門內一藥重出, 而治證·藥材·服法無加減, 則於初見處, 書某方同; 大同小異, 則其異者分附; 小同大異, 則 全方附錄.”

40). “諸方論去其重複不書, 某方同或文同, 而首尾稍異, 則略舉首語, 而書云云, 連書其尾語.”

41). “一藥證治兼諸病者, 不分書各門, 但依本方所載之門書之.”

만약 ‘得效方’이나 ‘玉機微義’등과 같이 꼬리를 물고 연달아 쓰인 경우에는 또 본방에 있는 약방명만 쓰고 주에 처방은 아무 책에 있다(方見某方)고 하였다⁴²⁾,

”모든 方書의 본문에 ○(圈點)이 쳐진 것은 한 글자 간격을 비우고 적었다. 이 책에서 덧붙여 기록한 경우에는 처음 붙인 방서의 이름 위에 ○을 쳐서 원문과 구별하였다. 약재 밑에 이 책에서 붙인 주도 역시 모두 ○을 표시했다⁴³⁾,

”한 처방 안에 다른 책의 것을 덧붙여 기록할 때는 처음 쓰는 데만 책명을 제대로 다 적고 계속하여 쓰는 경우에는 약칭해서 거명했다. 예컨대 처음에 ‘巢氏病源’이라고 적었다면 그 다음에는 ‘巢源’이라고만 적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⁴⁴⁾

등에 근거하여 『의방유취』 어의촬요편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비교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타 인용의서편에서 발췌된 어의촬요의 기록은 모두 36조였다.

이상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발췌된 인용문은 2차로 상호 대조를 통하여 중복 처방을 수합한 결과 129조의 처방이 정리되었다. 『향약집성방』, 혹은 『의방유취』내 어의촬요편과 여타 편에서의 중복하여 수록한 처방들은 대개 약간에 문자 출입이 있으나 처방구성이나 주치증이 다른 경우가 아니면 동일 처방으로 간주하고 취합하였다. 이때 원문 문자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인용원문의 전제를 원칙으로 하는 『의방유취』의 발췌문을 정문으로 선택하였고 대조 인문은 고안에 함께 수록하여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의방유취』 어의촬요편에는 처방명만 수록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의방유취』 원문 내 동명처방이나 처방사전을 검색하여 대조하면서 최대한 보궐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처방이 용도가 광범위하고 동명처방이 너무 많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다만 후대 의서인 『分門瘟疫易解方』에서 1조를 발췌하여 보궐하는데 그쳤다.

또 중복된 처방중 五京丸과 厚朴湯은 『향약집성방』에 처방명이 없었으나 의방유취와의 대조로 처방명을 찾아 보궐하였고, 전혀 방명이 없는 것(十水腫散, 乳汁不通散)은 주치증이나 다른 처방명과 구별되는 특색을 찾아 대입시켜 일단 분류상의 편

42). “凡藥再見者, 于初見方附之. 若『得效方』·『玉機微義』等首尾相連之書, 則又于本方只書藥名, 注云方見某方.”

43). “諸方本文加圈者, 空一字書之. 今附錄者, 首附方名上加圈別之. 藥材下今附注亦皆圈之.”

44). “一藥內他方附錄時, 首書者備舉方名, 繼書則略舉. 如首書『巢氏病源』, 則繼書『巢源』之類.”

의를 도모하고 비교란에 부기하였다.

3.2. 편집방법-문의 구성

『어의촬요』의 편집체제에 관해서는 서문에 의거하여 2권으로 분권된 것 이외에는 서지나 목차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여러 방서중 가장 긴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덧붙였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당시 많이 사용되던 唐宋시기 의서와 전래 의서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서문에 나타나는 『本草』·『千金』·『斗門』·『聖惠』 등의 의서가 신성시되고, 권질이 너무 많아 위급할 때에 열람하기 곤란하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위의 4종 이상의 의서에서 필수 처방이 다소 발췌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分爲二卷，又添附諸方之最要者，使人繕寫，名之曰『御醫撮要』.....”

『의방유취』내 『어의촬요』 복원문중 타 의서의 인용편에 수합된 경우의 예를 조사하여 인용 가능성을 파악해 보면 金匱方, 斗門方, 千金方, 聖惠方, 簡易方, 和劑局方, 聖濟總錄, 衛生寶鑑 등이 검출된다. 이중 『위생보감』은 元代 羅天益이 1343년경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어의촬요』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어의촬요』 편찬 시 참고서 내지 인용서류로는 『본초경』, 『금궤방』, 『두문방』, 『천금방』, 『성혜방』, 『간이방』, 『화제국방』, 『성제총록』 등 주로 당송시기의 문헌들이 주로 이용되었으리라고 본다.

또 2권으로 분류 재편된 과정에서 병증별 분류가 이루어졌으리라 여겨지며 현재 의의촬요방이 인용된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인용편목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의 편제를 복구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세목 차서와 권별 분류는 더욱 난점으로 막연하기만 하다. 궁리 끝에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향약구급방』이 분량, 편찬 목적, 편집방식, 용어 등 여러 면에서 고려 중기 이후 의서의 특성을 담고 있어 유사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검색정리된 『어의촬요』 처방의 병증 항목과 『향약구급방』의 목차를 비교 검토했으나 부합되는 점이 적어 일단 본고에서는 『의방유취』의 병증 각문의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복원문의 차서와 병증각문의 분류는 원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며, 다른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향약집성방』 인용문 12조는 대부분 유사 항목에 편입시킬 수 있어 별도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래는 『의방유취』의 병증 각문(91문중 부인, 소아는 대문만 기재)의 체제인데, 『

어의촬요』 처방이 수록된 해당 문을 밑줄로 표시하여 대비하였다.

「總論」·「五藏門」·「諸風門」·「諸寒門」·「諸暑門」·「諸濕門」·「傷寒門」·「眼門」·「齒門」·「咽喉門」·「口舌門」·「耳門」·「鼻門」·「頭面門」·「毛髮門」·「身體門」·「四肢門」·「血病門」·「諸氣門」·「諸疝門」·「陰癩門」·「諸痺門」·「心腹痛門」·「腰脚門」·「脚氣門」·「脾胃門」·「三焦門」·「飜胃門」·「嘔吐門」·「膈噎門」·「霍亂門」·「沙證門」·「眩暈門」·「宿食門」·「積聚門」·「咳逆門」·「咳嗽門」·「聲音門」·「諸瘡門」·「消渴門」·「水腫門」·「脹滿門」·「黃疸門」·「諸淋門」·「赤白濁門」·「大小便門」·「諸痢門」·「泄瀉門」·「諸虛門」·「勞瘵門」·「痼冷門」·「積熱門」·「火門」·「虛煩門」·「驚悸門」·「健忘門」·「諸汗門」·「癩癩門」·「中惡門」·「解毒門」·「酒病門」·「蟲毒門」·「諸蟲門」·「辟蟲門」·「蟲傷門」·「獸傷門」·「癩疹門」·「疥癬門」·「諸臭門」·「癰疽門」·「丁瘡門」·「丹毒門」·「瘰癧門」·「諸瘻門」·「瘰癧門」·「痔漏門」·「便毒門」·「金瘡門」·「諸刺門」·「折傷門」·「諸瘡門」·「膏藥門」·「湯火傷門」·「漆瘡門」·「怪疾門」·「救急門」·「雜病門」·「諸湯門」·「諸香門」·「養性門」·「婦人門」·「小兒門」

소아질환의 처방이 빠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제품문 이하 병증 각문이 비교적 다양하게 검출되어 종합 방서로서의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3.3. 복원내용의 요약

검색된 어의촬요방의 출전은 『향약집성방』에서 12방, 『의방유취』에서 128방을 발췌한 것이다. 이중 『의방유취』내에서 중복된 것 3방, 『향약집성방』과 중복된 것이 6개 처방으로 전체 어의촬요방은 131방이었다⁴⁵⁾. 또 『분문온역이해방分門瘟疫易解方』 진양문鎮禳門, 역려병후疫癘病候에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 신명단神明丹’ 1조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의방유취』권63 상한문傷寒門37 어의촬요편에 처방명만 소개되어 있는 ‘벽온신명단辟溫神明丹’으로 추정되나 확증할 수 없어 일단은 별도의 처방으로 집계하였다. 따라서 적응증이나 처방 구성을 대조하여 중복 수록이 확실한 처방 9조를 수합하여 총 132조의 방문을 집일輯佚하였다.

수집된 어의촬요방에 대한 정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괄적인 분석

45). 기존 연구에서 『향약집성방』에서 12방, 『의방유취』에서 88개의 처방 등 모두 100방중에 중복된 것이 6방이라고 하였는데, 어의촬요 본편을 위주로 단순 채록하였기 때문에 여타 의서의 인용편에 취합된 처방이 다수 누락되어 수치상 오차가 크다. (신순식·최환수 외. 「高麗醫書에 대한 研究」, 1996: 389.)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의방유취』내 수록처방 128방 가운데 각 병증문의 어의촬요 본편에서 채록한 것이 90조였다. 또한 타 의서 인용내용중 수합되어 비교 인용된 경우, 천금방편(2), 금궤방편(1), 성혜방편(16), 간이방편(1), 화제국방편(13), 성제총록편(4), 위생보감편(1) 등에서 38방을 수집하였다. 이들 38방은 대개 先代 醫書의 주요 처방과 대조하여 정리된 것이다.

이것은 동명의 처방이나 유사처방을 한 곳에 모아 비교 정리한 『의방유취』의 독특한 편집방식에 의거한 것으로 그 취합방법은 앞서 소개된 범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방식을 재분석하여 채집한 38조의 어의촬요 처방들은 다음과 같은 의서의 유사처방들과 함께 비교 수재되어 있었다.

簡易方, 經驗秘方, 經驗良方, 古今錄驗, 管見大全良方, 救急, 臞仙活人心, 南北經驗方, 澹寮方, 得效方, 拔粹方, 備預百要方, 四時纂要, 三法六門, 三因方, 聖濟總錄, 聖惠方, 小品, 袖珍方, 神巧萬全方, 御藥院方, 嚴氏濟生方, 延年方, 永類鈴方, 玉機微義, 王氏易簡方, 王氏集驗方, 運化玄樞, 衛生簡易方, 衛生寶鑑, 醫方大成, 醫方集成, 濟生方, 直指方, 千金方, 千金月令, 千金翼方, 崔氏外臺, 和劑局方

『의방유취』의 각 병증문별로 게재순서에 따라 분류한 어의촬요방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37개 문).

風門(19), 暑門(1), 傷寒門(2), 眼門(1), 齒門(2), 咽喉門(4), 鼻門(1), 耳門(2), 血病門(1), 氣門(2; 嘔吐門(1)과 중복), 心腹痛門(2), 腰脚門(3), 脚氣門(3), 脾胃門(12; 酒病門(1)과 중복), 霍亂門(2), 宿食門(1), 積聚門(1), 咳嗽門(6), 瘡門(2), 水腫門(5), 大小便門(2), 痢門(8; 중복 1방), 泄瀉門(1), 虛門(14), 驚悸門(2), 健忘門(1), 中惡門(1), 酒病門(7; 비위문과 중복 1방-비위문), 癰疽門(4; 膏藥門(1) 중복), 諸瘻門(1), 痔瘻門(2), 瘡門(5), 膏藥門(1; 癰疽門 중복), 雜病門(7), 婦人門(2)

위와 같이 의방유취 수록순에 의거하여 재편된 『어의촬요』의 132개 처방을 각기 채록된 병증문과 대조방을 조사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비교란의 □ 표시는 방명만 수록되고 처방 내용이 없는 경우이다. 처방명만 있고 처방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 傷寒 2조, 咳嗽 3조, 補虛 13조 등 총 18방으로 세 부분의 병증문에 집중적으로 국한되어 있다⁴⁶⁾.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의방유취 초간본의 결손으로 인한 것이

다⁴⁷⁾. 전체 266권 중 14권 가량이 결락缺落되어 있는데, 권63 상한문, 권98 각기문, 권120 해수문, 권154 제허문의 어의촬요 처방이 결손부에 해당한다. 이 중 각기문의 청골피환, 택사환, (풍각)흑두전은 취진본에서 보궐된 것이다.⁴⁸⁾

향약집성방 수록처방의 경우, 편제와 수록 편명이 다소 다르지만 12조 처방중 6처방은 의방유취 인용처방과 중복되고, 나머지 처방도 병증 문별 취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본문 은역이해방의 신명단은 일단 벽온신명단에 의거 상한문에 배속하였다.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에서의 어의촬요방의 분포는 풍문(19), 허문(14), 비위문(12) 순으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이것은 일단 두 의서에서의 어의촬요 인용빈도라 할 수 있지만 원서내용의 비중을 의미한다고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은 복원된 처방을 의방유취 수록 병증문의 순서로 배열하고 각 처방마다 채록된 출전의 편명을 조사하는 한편, 의방유취 내 동일 처방조에 수합된 인용의서를 제시한 대조표이다.

처방명 뒤의 * 표시는 출전별로 차이가 있거나 방명이 누락되어 임의로 보충한 경우이다. 기타 처방에 따라 복원의 근거나 참고사항을 비고란에 표시하였다.

46). 필자는 앞서 「어의촬요-실전의서의 복원, 논문에서 유취 편찬 당시 어의촬요 원본의 결실 가능성을 추정 한 바 있으나 유취 원본을 치밀하게 상고하지 못한 착오였음을 밝힌다.

47). 궁내청 서릉부 도서료에 보관중인 성종본 의방유취는 252책으로 모두 14책이 모자란다. 결권은 권63, 98, 116, 120, 132, 148, 149, 154, 155, 156, 189, 207, 209, 220.

48). 각기문의 세 처방은 취진본 복간시 교정을 맡았던 澁江奎書에 의해 보궐된 것으로 여겨지며, 風脚黑豆煎은 목록에 그냥 黑豆煎으로 되어 있으나 권129의 水脚黑豆煎, 水腫黑豆煎의 예에 의하여 상호 구별을 위해 ‘風脚’ 두 자를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 어의촬요방 출전별 복원대조표 1 >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小續命湯		권14 諸風門2 千金方1 諸風	千金方, 崔氏外臺, 小品, 千金翼, 古今錄驗, 救急, 延年, 千金月令, 和劑局方, 三法六門,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玉機微義, 王氏集驗方, 三因方, 簡易方, 經驗良方, 直指方, 嚴氏濟生方, 管見大全良方, 濟生方, 得效方, 永類鈴方, 臞仙活人心	
靈寶丹		권18 諸風門6 聖惠方4 治一切風通用丸藥諸方	聖惠方, 和劑局方	附方1: 紅雪通中散 附方2: 生薑黑豆湯
神效無比牛黃丸		상동	聖惠方	
至寶丹		권19 諸風門7 和劑局方 治諸風	和劑局方, 經驗秘方, 玉機微義,	어의촬요方문에 화제국방治證취합
牛黃清心圓		상동	和劑局方, 醫方集成, 得效方, 南北經驗方, 袖珍方, 簡易方, 永類鈴方	
摩訶圓		상동	和劑局方, 御藥院方	
薄荷煎圓		상동	和劑局方, 王氏易簡方	
資壽方黑龍圓		권20 諸風門10 簡易方	簡易方, 得效方	
木香丸		권22 諸風門10 衛生寶鑑 風中腑諸方	衛生寶鑒	
大靈寶丹		권24 諸風門12 御醫撮要		
愈風丹		상동		
碧琳丹		상동		
餅子急風丹		상동		
宣補大黃丸		상동		
靈寶丸		상동		
七聖丸		상동		
香犀丸		상동		
菊花湯		상동		
防風浴湯		상동		

< 어의촬요방 출전별 복원대조표 2 >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白虎湯		권26 諸暑門2 御醫撮要		
辟溫神明丹		권63 傷寒門37 御醫撮要		□(상한문 목록)
神明丹				『分門瘟疫易解方』 鎮 禳門 疫癘病候
三拗湯		상동		□(상한문 목록)
駐景丸		권66 眼門3 聖惠方2 治眼昏暗 諸方	聖惠方, 簡易方, 管見大全良 方	
細辛湯		권73 齒門3 御醫撮要		
荊芥湯	권34 齒牙門 牙 齒疼痛	상동		
礪砂圓		권74 咽喉門2 和劑局方 咽喉	和劑局方, 管見大全良方	
解毒雄黃圓		상동	拔粹方, 玉機微義, 備預百要 方, 王氏集驗方, 醫方大成, 醫 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永類鈴方, 衛生簡易方, 衛生 寶鑑, 三因方, 簡易方, 直指方	
金消丸		권75 咽喉門3 聖濟總錄 咽喉 喉痺	聖濟總錄	
含化龍腦丸*		권75 咽喉門3 聖濟總錄 咽喉 馬喉痺 龍腦丹砂丸方	聖濟總錄	*聖濟總錄: 龍腦丹砂 丸
止衄吹鼻散	권28 鼻衄門 鼻 衄			
消石膏*		권78 耳門2 聖濟總錄 久聾 麒 麟竭丸方	聖濟總錄	*聖濟總錄: 麒麟竭丸
耳膏		권78 耳門2 御醫撮要		
黃耆湯		권86 血病門3 御醫撮要		
七氣湯		권87 諸氣門2 和劑局方 一切 氣	和劑局方, 三因方, 澹寮方, 直 指方, 簡易方, 御藥院方, 醫方 大成, 醫方集成, 袖珍方, 永類 鈴方	
生氣湯		권87 諸氣門2 和劑局方 一切 氣 권105 嘔吐門2 御醫撮要	和劑局方	중복

<어의촬요방 출전별 복원대조표 3>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九痛丸		권92 心腹痛門1 金匱方 胸痺心痛 短氣病脈證治	三因方,得效方,澹寮方,玉機 微義,千金方,嚴氏濟生方,醫 方大成,永類鈴方,南北經驗 方,醫方集成,袖珍方	
五京丸	권23 心痛門 心腹痛	권94 心腹痛門3 御醫撮要		『향약집성방』에 처방명 無
肉苳蓉丸		권96 腰脚門3 御醫撮要		
補骨脂丸		상동		
熟乾地黃丸		상동		
青橘皮丸		권98 脚氣門3 御醫撮要		권98원 본 결 손, 이하3조 취진본 보결
澤瀉丸		상동		
風脚黑豆煎*		상동		각기문 목록에는 黑豆煎
理中圓		권100 脾胃門2 和劑局方 脾胃	和劑局方	
養脾圓		상동	和劑局方,澹寮方,醫方大成, 醫方集成,南北經驗方,袖珍 方,永類鈴方	
小理丸		권102 脾胃門4 御醫撮要		
橘皮丸		상동		
化痰玉壺丸		상동		
沈香湯		권102 脾胃門4 御醫撮要 권165 酒病門2 御醫撮要		
六一湯		권102 脾胃門4 御醫撮要		
白朮湯		상동		
豆蔻湯		상동		
參香湯		상동		
厚朴湯	권27 脾胃門 脾胃諸證	상동		『향약집성방』에 처방명 無
金粟湯		상동		
高良姜理中丸		권108 霍亂門2 御醫撮要		
白豆蔻湯		상동		
十全溫白丸		권109 宿食門 御醫撮要		
耆婆萬病圓		권111 積聚門3 和劑局方 積聚	和劑局方,簡易方	
紫蘇子丸		권115 咳嗽門2 聖惠方1 咳嗽 治久 咳嗽諸方	聖惠方,神巧萬全方	
胡椒理中丸		권115 咳嗽門2 聖惠方1 咳嗽 治咳 嗽短氣諸方	聖惠方,和劑局方,管見大全 良方,得效方,醫方集成,南北 經驗方,袖珍方,永類鈴方	

< 어의촬요방 출전별 복원대조표 4 >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皂莢丸	권24 諸效門 效嗽	권120 咳嗽門7 御醫撮要		□(해수문목록)
生犀丸		상동		□(해수문목록)
洗肝湯		상동		□(해수문목록)
人蔘煎	권24 諸效門 久效嗽			
辰砂丹*		권122 諸瘡門2 聖惠方2 治一切瘡諸方 朱砂丸方	聖惠方	*聖惠方:朱砂丸
恒山丸		권123 諸瘡門3 御醫撮要		
海蛤丸		권127 水腫門2 聖惠方 治水氣遍身浮腫諸方	聖惠方	
牽牛湯		권129 水腫門4 御醫撮要		
水脚黑豆煎		상동		
水腫黑豆煎		상동		
十水腫散*	권17 水病門 十水腫			*원서에 無名
神功圓		권135 大小便門2 和劑局方	和劑局方,三因方,得效方,衛生寶鑑	
麻仁圓		상동	和劑局方	
梅連丸*		권138 諸痢門3 聖惠方 治膿血痢諸方 烏梅丸方	聖惠方	*聖惠方:烏梅丸
內補丸		권138 諸痢門3 聖惠方 治冷熱痢諸方 권141 諸痢門6 御醫撮要	聖惠方	중복
駐車丸		권141 諸痢門6 御醫撮要		
阿膠丸		상동		
柏葉丸		상동		
石榴皮湯		상동		
赤芍藥散	권37 諸痢門 赤痢			
艾葉散	상동			
止瀉無比丸		권143 泄瀉門3 御醫撮要		
八味圓*		권144 諸虛門2 千金方1 補腎 八味腎氣圓	千金方,千金月令,千金翼方,和劑局方,簡易方,永類鈴方,拔粹方,四時纂要,運化支樞	*千金方:八味腎氣圓
免肝丸		권147 諸虛門5 聖惠方3 治虛勞目暗諸方	聖惠方	

< 어의촬요방 출전별 복원대조표 5 >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杞菊丸		권154 諸虛門12 御醫撮要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巴戟天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椒紅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補益石斛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鹿茸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黃芪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菴蓉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茯神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巴戟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楮實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鹿角膠煎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摩風膏		상동		<input type="checkbox"/> (제허문 목록)
五補丸		권197 雜病門3 御醫撮要		<input type="checkbox"/> 七宣丸방문중언급
人參丸		권158 驚悸門 御醫撮要		
定志圓	권15 驚悸門 驚悸諸證			
檀香丸		권159 健忘門 聖濟總錄 心健忘	聖濟總錄	
朱砂丸		권161 中惡門2 聖惠方2 治中惡諸方	聖惠方	
白乳湯		권165 酒病門2 御醫撮要		
草豆蔻湯		상동		
金露湯		상동		
玉液湯		상동		
龍腦湯		상동		
參苓湯		상동		
生姜湯		상동		

< 어의촬요방 출전별 복원대조표 6 >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內鍊牛黃丸		권178 癰疽門9 御醫撮要		
萬靈膏		상동		走馬膏 언급
麒麟膏 麒麟竭膏		권178 癰疽門9 御醫撮要 권193 膏藥門1 聖惠方 治一切癰疽發背瘡腫潰後排脈膏藥諸方	聖惠方	중복
附子膏		권178 癰疽門9 聖惠方 治丁瘡諸方 治丁瘡方	聖惠方	
五方帛膏		권181 諸瘻門 聖惠方 治久瘻諸方	聖惠方	
獨皮丸		권182 痔漏門1 聖惠方 治五痔諸方	聖惠方,神巧萬全方	
軟玉膏		권193 諸瘡門6 御醫撮要		
大黃泥		상동		
香泥膏		상동		
走馬膏		상동		萬靈膏 방문중 언급
敗毒膏		상동		
白臘膏		권194 湯火傷門2 聖惠方		聖惠方名神效白膏
神效貼灸膏		권194 湯火傷門2 御醫撮要		
溫白丸		권197 雜病門3 御醫撮要		
七宣丸		상동		회복시 五補丸 복용 거명
艾葉煎丸	諸痢門 冷痢	상동		
乾地黃丸		상동		
薄荷湯		상동		
人參湯		상동		
杏霜湯		상동		
保生丸		권212 婦人門 通治3 御醫撮要		
乳汁不通散*	권66 婦人科 産後門 産後乳汁或行或不			원서에 無名

『어의촬요』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을 통하여 고려의 왕실 어약기관인 다방에서 사용되던 경험방과 당시 통용되던 처방 중 우수 처방이 엄선되어 『신집어의촬요방』에 수록되고 이것이 다시 조선 전기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 대량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서지서목의 조사 결과 이 책이 조선 후기에 실전되어 전승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중준은 고려 고종조 추밀원에 재직하면서 당시 전해오던 어의촬요방을 수집하고 재편하는 등 이 의서의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규보는 당대 최고의 문필가이자 의학적 소양이 뛰어난 유의로서 「신집어의촬요방서」를 짓

는 등 『어의촬요』의 편찬에 직간접인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방유취』의 「범례」에 근거하여 유취 내 각 문에 산재하여 인용된 『어의촬요』 128방을 채집하고 『향약집성방』에서 발췌한 12방 및 『분문온역이해방』 1조문 등을 채록하여 취합정리한 결과 총 132조의 방문을 복원하였다.

이상 조사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향약집성방』을 위주로 알려진 내용에 비해 훨씬 많은 분량의 처방이 남아 있었으며, 판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해 준다.

『어의촬요』는 고려 왕조 누대의 경험방들로서 중국 의서와의 대조를 통해 중세 궁중의약의 면모를 알 수 있어 의사학적 가치가 크다. 또 당시 중시되던 중국 의서 중 정수를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여말선초에 신진의학설의 수용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치가 인정된다.

수집 복원된 처방 중 3분의 2 가량의 처방이 중국 의서와 비교 취합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의촬요』 수록 처방이 다방에서 전래된 고유의 전통처방이거나 중국의학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경험이 가미된 특색을 가지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